

초등학교 합창부의 활성화를 위한 합창수업 프로그램 개발*

장 은 언**

합창활동의 음악적, 교육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학교음악교육에서 합창활동이 축소되는 교육 현실을 바라볼 때 합창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주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음악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24차시 합창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교육과정과 음악 교과서의 합창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현재 초등학교 합창활동의 현황을 진단한 후 실제 초등학교 교실합창과 합창부 활동을 조사·분석한 연구가 제시한 문제점을 새로운 합창 프로그램에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단계별 합창지도의 순서에 따라 주제별로 6 단계로 나누어진 프로그램은 듣는 훈련을 통해 합창과 친해지기, 신체표현을 겸한 발성, 교과서 제재곡을 다양한 방법으로 합창하기, 생활 속 음악을 이용한 합창 레퍼토리 확장, 합창 발표회 순으로 구성하였다.

※ 주제어: 합창수업, 신체표현과 발성, 합창 레퍼토리, 단계적 합창지도

차 례

- I. 들어가는 말
- II. 연구 목적과 방법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 방법
- III. 이론적 배경
 - 1. 음악과 교육과정의 합창활동 내용
 - 2. 초등학교 합창활동의 문제점
 - 3. 합창지도를 위한 교수법적 접근
- IV. 프로그램의 실제
 - 1. 프로그램 구성요소와 원칙
 - 2.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 V. 결론 및 제언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B5A07037132)

** 춘천교육대학교 강사

I. 들어가는 말

노래 부르기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악활동 중 하나이다. 특히 여러 사람이 성부를 나누어 화성을 이루며 부르는 합창은 단순히 노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며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곡을 완성시킨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에 따른 교육적 가치와 효과가 매우 높아 학교 음악교육에서도 합창활동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

합창활동의 교육적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합창은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준다. 합창활동을 통해 서로 간에 유대감과 결속력이 형성되어 학교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둘째, 합창활동에서 경험하는 화성감을 통해 학생들은 정서가 순화되어 보다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다. 나아가 이때 형성된 주의력과 집중력은 다른 학습에도 영향을 끼친다. 셋째, 합창곡의 선율과 가사를 통해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그로 인해 음악적 정서를 형성하도록 이끈다. 이는 전반적으로 기초음악능력의 발달에 도움을 준다(윤성원, 2012; Beckers & Oezdemir, 2010).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음악교육에서 합창교육은 최근까지 음악교과 시간, 방과후 학교, 계발활동 시간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2007 및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합창활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7차 교육과정에 비해 그 내용과 음악적 수준이 축소되었으며, 심지어 각 학교별로 합창부 활동은 축소되거나 해지된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¹⁾.

이와는 대조적으로 최근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 뮌스터(Münster)시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합창교육 프로젝트는 합창교육의 긍정적인 효과와 그를 통한 음악교육의 발전을 보여주는 적절한 예에 해당한다. “모든 어린이가 저마다의 목소리를(Jedem Kind seine Stimme)”이란 제목의 프로젝트는 뮌스터시가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합창을 생활화하자는 취지로 2007년도에 시작하여 2015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2010년 통계에 따르면 프로젝트 시행 이후 합창활동과 더불어 뮌스터시 전체 초등학교 학생의 60% 이상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합창부의 지속적 증가가 관찰되었다. 특히 중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교육과정에

1) 각 시·도별 교육청 주관의 지구별 합창대회가 없어지면서 학교 합창부의 활동영역도 축소되었으며 학교자체의 지원과 관심도 줄어든 사례가 조사되었다(임현정 2014, pp. 29-31).

합창교육을 포함시킨 것과 전체 교사들이 합창활동에 먼저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결과 덕분이라고 분석하고 있다(Beckers & Oezdemir 2010). 뮌스터시가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점점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우리나라 합창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활동보다 이해 중심이었던 독일 음악교육이(함희주 외, 2012) 활동중심의,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한 노래 부르기를 중심으로 음악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선회함으로써 큰 효과를 거두었음을 합창프로젝트는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본 논문은 초등학교 합창부를 위한 24차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합창활동에 대한 흥미를 느껴 보다 적극적으로 음악활동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며 즐겨 부르는 노래로 합창 레퍼토리를 확장하고 놀이와 신체표현을 병행한 발성연습 등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이며 단계적인 합창지도법을 적용하여 합창활동 자체에 흥미를 갖도록 내적 동기부여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학교음악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합창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를 통해 음악교육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조화로운 발전과 학생들의 전인적 교육의 실천을 도모하고자 한다.

II. 연구 목적과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합창활동은 그 교육적 가치와 효과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악기배우기 수업과 비교하여 볼 때 경제적인 부담도 적다. 합창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노래 부르기 실력을 향상함으로써 음악적 성취감을 높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자기효능감도 극대화할 수 있다. 나아가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합창활동은 학생들의 사회성과 음악적 정서의 발달과 더불어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도록 이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창활동은 학생과 지도교사 모두에게 많은 노력과 음악적 재능, 시간을 요구하는 활동이란 점에서 어려움이 따른다. 더구나 학생들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연습 또는 외부공연, 대회참가 등에 대한 시간투자가 많다는 이유로 합창부의 활동참여를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도교사의 입장에서도 합창지도를 위한 전문성 부족과 많은 학생들을 동시에 지도하고 관리해야 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 크다(윤성원, 2012; 임현정, 2014).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초등학교 내의 합창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도하여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동안 학교 합창교육의 증진을 위한 연구들도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교실에서의 합창을 지도하는 교수방법적인 면에 주안점을 둔 연구(조순이, 2011; 진강희, 2006)와 합창활동을 돕기 위한 부차적인 활동을 제시하고 적용한 연구(류미혜, 2009; 우두선, 2010)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교실합창수업을 위한 지도방법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합창부 활동의 체계적인 지도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밖에도 학교 합창교육의 현황과 합창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창부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룬 논문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대체로 전체적인 교육 시스템의 개선에 관한 제안을 한 연구들로서(윤성원, 2012; 전영경, 2011; 임현정, 2014) 실제적인 지도방법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앞서 살펴본 교육과정의 변화와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합창교육의 현황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음악과 교육과정상의 합창활동 영역의 축소에 따른 제도적인 면의 변화이고, 둘째는 각 학교 내 합창부 및 음악교과의 합창지도에 있어서 교사가 겪게 되는 지도상의 어려움이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지도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합창 지도방법의 개발을 통해 제도적인 면이 개선되기는 어렵겠지만 합창교육의 활성화를 꾀할 수는 있을 것이다. 물론 합창할 수 있는 능력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에 기초적 단계인 합창과 친숙해지기를 시작으로 하여 합창에 숙달하기 까지를 최소한 한 학기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한 24차시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해당하는 다양한 악곡과 활동을 통해 음악적 능력을 기르고 음악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기르고자 함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합창부의 합창활동 현황을 살피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합창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개선점을 찾는 것이다. 둘째, 도출된 문제점을 고려하여 합창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는 우선적으로 합창곡 듣기로 시작하여 다양한 형태로 합창하기 위한 레퍼토리와 지도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셋째,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단계적 합창활동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 합창활동의 활성화를 꾀함은 물론 학생들이 합창을 통해 소통과 배려를 익히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2. 연구 방법

초등학교의 합창활동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진행된다. 학교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음악수업 내에서의 합창활동과 학교 특별활동 부서로서의 합창부 활동이다. 본 논문은 합창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주목적이기에 우선 특별활동 부서인 합창부에 주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합창부를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교과서의 제제곡과 교육과정의 지도요소를 적용함으로써 학교 음악수업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일반 음악수업의 합창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합창지도에 필요한 지도방법을 제공받게 되어 교실 합창활동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단계로 진행된다. 첫 단계는 합창활동의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다. 교육과정과 음악 교과서의 합창관련 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초등학교 합창활동의 현황을 진단하고자 한다. 또한 초등학교 교실합창과 합창부 활동을 조사·분석한 선행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본 연구자가 제안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두 번째는 24차시 합창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로서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합창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유형 그리고 레퍼토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발성연습의 의미를 확대하여 신체표현과 놀이 및 의식을 적용하는 방법을 시도할 것이고 합창을 두 마디 혹은 네 마디의 작은 단위로 함으로서 매 시간 합창경험을 하도록 할 것이다. 다양한 레퍼토리 탐색을 위해서는 목소리 뿐 아니라 악기와 함께 연주하기, 대중음악, 광고음악, 기악음악에 노랫말 붙이기 등으로 합창의 의미와 영역을 확장하고자 한다. 연구의 최종목표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일회성 수업모형이 아닌 단계적인 합창교육으로서 24차시 수업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각각의 합창부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이다. 즉 24차시 수업 프로그램은 주 1회 수업의 일 년 과정과 주 2회 수업의 한 학기 과정으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과정의 학습요소를 포함하는 각 차시별 지도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여 특별활동 부서로서의 합창부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의 정규 음악수업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Ⅲ. 이론적 배경

1. 음악과 교육과정의 합창활동 내용

초등학교 합창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합창과 관련된 내용의 변화를 다음의 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표 1> 교육과정 문헌상의 합창활동

학년	7차 교육과정 (학년별 내용)	2007 개정교육과정 (내용체계)	2009 개정교육과정 (학습활동예시)
3	지휘에 맞추어 독창, 제창, 합창하기	간단한 돌림노래 부르기	소리의 어울림을 느끼며 돌림 노래를 부르거나 오스티나토 리듬반주하기
4		돌림노래 부르기	
5	지휘에 맞추어 중창, 합창하기	간단한 부분 2부합창 하기	성부의 어울림을 느끼며 간단 한 부분 2부합창하기
6		부분 2부합창 하기	

2009 개정교육과정은 음악과의 내용체계에 있어서 합창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부록으로 제시한 학년군별·영역별 학습활동 예시에 3·4학년은 ‘소리의 어울림을 느끼며 돌림 노래를 부르거나 오스티나토 리듬 반주를 한다’와 5·6학년에서는 ‘성부의 어울림을 느끼며 간단한 부분 2부 합창을 한다’로 합창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의 개정과 함께 합창에 관련된 내용이 점점 축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3~6학년 음악교과서의 합창곡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 속 합창곡 비중을 <표 2>를 통해 비교하였다.

<표 2> 교과서 내 합창곡 비율 비교

학년	7차 교육과정	2007 개정교육과정
3	총 25곡 중 1곡(4%) -부분 2부합창1곡	0곡
4	총 20곡 중 5곡(25%) -부분 2부합창 5곡 -2부합창 2곡	총 25곡 중 부분 2부합창 1곡(4%)
5	총 25곡 중 7곡(25.9%) -부분 2부합창 6곡 -2부합창 1곡	A 교과서 ²⁾ : 총 22곡 중 부분 2부합창 4곡(18.1%) B 교과서 ³⁾ : 총 32곡 중 부분 2부합창 7곡(21.8%) C 교과서 ⁴⁾ : 총 21곡 중 부분 2부합창 4곡(19.0%)

학년	7차 교육과정	2007 개정교육과정
6	총 25곡 중 9곡 (34.5%) -부분 2부합창 5곡 -2부 합창 3곡 -부분 3부합창 1곡	A 교과서: 총 25곡 중 부분 2부합창 6곡 (24.0%) B 교과서: 총 27곡 중 부분 2부합창 7곡(25.0%) C 교과서: 총 17곡 중 부분 2부합창 2곡(11.7%)

7차 교육과정에서 4학년 전체 25%, 5학년 전체 25.9%, 6학년 34.5%인 합창곡의 비중이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 눈에 띄게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교과서 제재곡 내에서 합창곡이 차지하는 비율은 학교 음악수업에서 합창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과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일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교육과정의 합창곡을 비교해 볼 때 제재곡의 비율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합창곡의 종류도 단순해졌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부분2부 합창과 2부 합창·돌림노래·오스티나토·대선율 노래 등 다양한 악곡이 수록되었던 반면 2007 개정교육과정의 합창활동 내용에는 간단한 부분 2부합창과 부분 2부합창 곡으로 그 내용이 단순해졌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중 합창활동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2. 초등학교 합창활동의 문제점

본 장에서는 현재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는 합창수업의 실태와 합창활동의 현황을 분석한 선행연구 자료를 토대로 합창활동이 쇠퇴하게 된 문제점과 취약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교실합창의 지도와 합창부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은 제도적인 문제와 물리적 여건의 개선과 함께 교사의 전문적인 합창지도능력의 향상과 업무의 경감이라고 분석하고 있다(이경은, 2010; 임현정, 2014; 한상남, 2004).

합창활동 현황은 합창부 활동과 교실합창수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합창부를 주목해 보면 모든 학교에 합창부가 있는 것은 아니다.⁵⁾ 합창부 개설이 어려운 이유는 학급수가 적은 학교에서 합창부원의 정원을 채우기가 어렵다는 점과 주지과목에 비해 음악교과의 비중이 약해진 점에 그 원인을 둘 수 있다. 인

2) 금성출판사 음악교과서. 양정모 외 7인, 2012.

3) 천재교육 음악교과서. 신계휴 외 6인, 2011.

4) 태성출판사 음악교과서. 주대창 외 5인, 2011.

5) 서울 남부교육청 내 초등학교 10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연구자가 구두설문 조사한 결과 합창부가 개설된 학교는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지역 초등학교 합창부 운영실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특별활동 부서로서 합창부를 개설하고 있는 학교는 대체로 재량활동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합창부 연습시간을 확충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일반적으로 음악 전담교사가 배정되어 합창부를 지도하거나 운영하고 있지만 음악적 지도능력이나 교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합창부를 지도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합창부를 운영하는 이유가 순수한 교육적 목적뿐 아니라 '각종 대회 참가를 위해서'가 4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나 각종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보다 클럽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된다는 결과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학생들의 참여도를 조사한 결과 합창대회에 대해서는 '흥미는 있으나 참여도가 낮다'가 47.1%로 나타난 반면 클럽활동으로서 각종 대회 참가가 목적이 아닌 아동의 흥미에 따라 합창부를 운영하는 경우 '흥미를 가지고 아주 열심히 참여한다.'라는 응답이 36.3%로 나왔다. 이는 자유롭게 참여하는 클럽활동과 같은 합창활동이 음악교육적인 면에서 훨씬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한상남, 2004).

합창부 운영과 지도상에 있어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내용면에서 교사들은 발성을 지도하는 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이 크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이는 발성이 가장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밖에 교사들이 합창지도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아동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악곡의 선정과 파트연습 지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파트연습에 관해서는 각 파트별로 연습을 할 때 다른 파트의 학생들을 관리하고 집중시키는 기술적인 면에서 지도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답하였다. 합창부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으로는 연습시간의 부족이 가장 첫 번째 사항으로 나타났으며 연습실 확보의 물리적 문제가 두 번째 그리고 학생들의 의욕과 흥미 및 끈기 부족이 세 번째 순으로 대두되었다(임현정 2014).

다음으로 경기도 지역의 초등학교 교실에서 진행되는 합창수업의 실태 중 지도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합창수업에서 가장 비중을 두어 지도하는 내용으로는 54.4%가 발성, 9.9%가 표현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교사로서 지도하는데 어려운 점은 52.9%가 발성, 3.9%가 호흡, 8.2%가 표현이라고 응답하였다. 합창지도방법에 있어서 50.6%의 교사가 파트 연습과 전체 합창에 똑같은 비중을 두고 지도하고 있으며, 20.7%는 전체 합창보다는 파트 연습에 더 비중을 두고 지도한다고 응답하였다. 합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65.1%가 그 부분만 반복해서 불러 본다고 하였으며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넘어간다는 교사도 12.6%나 되었다. 특히 합창지도 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 해결할

수 없다는 교사가 50.6%나 되었으며, 28%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결한다고 하였다(이경은, 2010.). 이를 통해 많은 수의 교사들이 합창지도의 경우 능력의 부족함을 느끼지만 시간 부족을 이유로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 보다 효율적으로 지도 할 수 있는 합창교수법을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초등학교 특별활동 부서인 합창부와 교실에서의 합창수업의 현황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적으로 합창활동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임과 동시에 교사들이 지도상의 어려움을 겪는 발성의 효율적인 지도법, 학생들의 내적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흥미있는 악곡선정과 부족한 시간의 합창수업을 효율적이며 즐겁게 이끌 수 있는 파트별 지도방법이 새롭게 개발되는 합창수업 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임을 역설해준다.

3. 합창지도를 위한 교수법적 접근

다음으로는 본 연구가 제시하는 합창수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사용한 교수법적 접근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어린이가 저마다의 목소리를(Jedem Kind seine Stimme)”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한 합창활동의 활성화를 이루어낸 점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합창지도의 원리는 악보 없이 부르기, 듣고 따라 부르기, 작은 단위로 노래 부르기, 신체표현하며 노래 부르기 등으로 요약된다(Reuther, 2012). 따라서 학생들의 적극성과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효율적인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본 연구는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지도방법으로부터 적용모델을 취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에 사용한 합창지도방법은 ‘작은 단위로 노래 부르기’, ‘악보 없이 부르기’, ‘신체표현을 병행한 발성과 노래하기’, ‘다양한 방법으로 합창하기’로 구분해볼 수 있다.

‘작은 단위로 노래 부르기’는 합창수업 프로그램에 있어서 중심적인 지도방법이다. 이는 로이터(Reuther, I. M.)가 그의 합창지도원리에서 사용한 것으로 두 마디를 교사가 무반주로 불러주면 학생들은 그대로 따라 부르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는 연주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방법과 비교해볼 때 인지해야할 음악적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정확히 음정을 듣고 모방하여 부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또한 고든(Gordon, E.)의 패턴을 이용한 음악학습위계와 비교가 가능하다. 고든은 음악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패턴이라고 명하였다. 이는 노

래 부르기 지도에서 사용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두 마디에 해당한다. 따라서 언어에서 단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음악에서 패턴을 이용하여 학습하면 오디에이트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고든의 견해이다(임미경 외, 2010). 또한 고든은 리듬 패턴과 음정 패턴으로 나누어 지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두 가지를 함께 지도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즉, 본 프로그램에는 고든의 음악학습이론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수용하였다.

‘악보 없이 부르기’는 교사의 선창을 듣고 따라 부르는 방법이다. 먼저 교사가 노래를 두 마디씩 정확한 음정으로 불러주면 학생들은 이를 듣고 따라 부른다. 악보 없이 듣는 것에만 의존하여 노래함으로서 학생들은 교사에게 더 집중하게 되어 학습능력도 향상된다. 고든은 그의 음악학습이론에서 악보 없이 부르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그는 효율적인 음악학습을 위해 악보 없이 듣고 부르기로 시작하여 점차 악보로 옮겨가는 방식을 권장한다. 이러한 고든의 기술 학습위계는 의미 없는 음절로 시작하여 가사를 붙인 다음 게이름과 리듬음절로 읽기, 나아가 악보읽기의 순으로 이어진다(현경실, 1994). 악보 없이 듣는 것에 의존하여 지도하는 방법은 악보중심으로 지도하는 것보다 학습효과가 뛰어나다는 연구들이 있는데 이는 고든이 주장하는 ‘음악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인 오디에이션의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이다(최미영, 2014).

위에 언급한 ‘작은 단위로 노래 부르기’와 ‘악보 없이 부르기’는 처음에는 모두 무반주로 진행된다. 조순이(2011)에 따르면 무반주로 노래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도록 만들어준다. 이러한 환경은 서로에게 집중하게 되고 교감하는 능력이 향상되어 리듬, 음정, 화음 등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나아가 각자 목소리의 크기와 음색을 조절하여 서로에게 맞추려는 자기조절 능력과 판단능력이 증진되는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하였다.

앞서 소개한 “모든 어린이가 저마다의 목소리를(Jedem Kind seine Stimme)” 프로젝트에서는 노래 부르기와 발성연습에 신체표현을 병행한 합창지도의 효율성이 입증되었다(Reuther, 2012). ‘신체표현하며 노래 부르기’는 달크로즈의 유리드믹스에 기초한다. 달크로즈는 모든 음악적 활동이란 우리의 신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악은 먼저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경험되어야 하며, 움직임을 통한 리듬감의 개발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음악교육방법이라고 주장한다(우두선, 2010). 그러므로 음악을 듣고 감지함과 동시에 신체로 반응하는 것이

음악적 이해를 돕고 높인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발성연습에 있어서도 간단한 신체표현을 병행하면 긴장을 풀어주고 노래 부르는 활동에 즐거움을 더해준다는 것은 일반적인 연구를 통해 익히 알려진 바다(Robinson, 2014). 노래를 부를 때 많은 근육을 사용하므로 간단한 신체움직임을 병행한 발성연습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신체를 유연하게 함으로서 몸을 노래 부르기 위한 편안한 상태로 준비시켜주기 때문이다(Reuther, 2012).

합창지도에 있어서 성부를 나누어 2성부, 3성부로 합창하기에 앞서 화음감을 느낄 수 있는 단순한 형태의 노래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이 합창지도방안의 하나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합창하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일디코(Ildikó, Herbolý-Kosár)의 단계적 지도에 따른 것이다. 헝가리의 음악교사인 일디코는 초등학생을 위한 다성부 합창에 대한 연구에서 합창 레퍼토리에 따른 단계적 지도를 응창-교창으로 부르기, 오르가눔 형태의 노래 부르기, 오스티나토 부르기, 2성부 부르기, 돌림노래 부르기, 화음창 부르기의 여섯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손보현, 2009). 그러나 본 연구는 일디코의 단계적 합창지도뿐 아니라 코다이 교수법의 화음지도와 다성음악 지도원리에 기초하여 합창레퍼토리를 구성하였다. 대표적인 예로서 코다이의 합창모음곡 <비치니아 헝가리카(Bicinia Hungarica, 1937)>에는 지속음 활용, 으뜸음과 딸림음을 사용한 저음노래 반주, 2성부 캐논 등 다양한 형태의 합창이 주요 연습곡으로 수록되어있다. 이들 합창곡은 초급에서 고급까지의 연습곡으로 구분되고 여러 형식을 제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합창하기’의 단계적 합창지도 수행을 위한 중요한 선례를 제공한다(임미경 외, 2010; 민경훈 외, 2013).

IV. 프로그램의 실제

1. 프로그램 구성요소와 원칙

앞 장에서 초등학교 합창활동의 현황자료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교실에서의 합창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의 할애와 교사들의 합창 지도능력 향상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도출되었다. 더구나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합창의 비중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초등학교 합창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과정에서 합창활동의 비중을 높이고 교과서에 보다 다양한 합창곡이 수록되는 제

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한편 실제적인 차원에서는 학생들이 합창활동에 관심과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과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합창지도법의 개발이 우선적인 과제가 된다.

다음은 초등학교 합창활동의 현황에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한 합창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으로서 24차시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기본요소와 교수법적 접근과 활용에 대한 내용이다. 첫째, 단계별로 이루어진 합창수업 프로그램의 주요 영역 및 주제는 발성, 합창 레퍼토리, 다양한 방식의 합창하기 그리고 주제가 있는 합창으로 구성된다. 교사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지도하는 것과 동시에 지도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부분은 발성이다. 이를 고려하여 발성을 위한 세부사항으로 신체 표현과 놀이와 같은 요소를 프로그램에 넣어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⁶⁾ 둘째, 합창지도 시 부족한 부분을 시간부족으로 인해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반영하여 합창곡을 가장 작은 단위인 두 마디로 시작하여 한 악절씩이라도 매시간 합창하도록 하는 것을 합창지도의 가장 핵심적인 지도방법으로 삼았다.⁷⁾ 또한 새로운 노래를 배울 때 악보 없이 무반주로 부르며 배운 합창곡을 매시간 반복하여 부름으로 자연스럽게 악곡을 외워 부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 사용된 지도방법은 <표 4>를 통해 제시하였다.

<표 3> 프로그램 구성의 기본요소

기본요소	활동내용
놀이와 신체표현을 병행한 발성	-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고려한 발성법, 모든 학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고려. 예시: 인사말, 자기소개를 가사로 한 발성, 신체표현과 함께 하는 발성
교과서 속 제재곡 활용	- 교과서의 음악요소를 적용하여 합창곡으로 편곡하여 적용하기
다양한 방법의 합창과 레퍼토리 경험	- 합창과 친해지기 위한 첫 단계로 2부 합창을 익히기 전 돌림노래, 옥타브 노래, 오스티나토 노래 부르기 - 여러 가지 리듬악기와 함께 부르기 - 대중음악, 팝음악, 광고음악, 게임음악, 만화영화 음악 등을 활용하여 합창곡으로 편곡하여 부르기
주제 제시	- 주제 또는 일관된 내용의 다양한 합창곡을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학기말에 음악극을 창작하여 발표. 예시: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차례대로 배운 후 학기말에 뮤지컬 발표하기

6) <표 3> 참조

7) <표 4> 참조

<표 4> 교수법적 접근과 활용법

기본요소	활동내용
작은 단위의 합창	- 한 차시에 합창으로 부르는 단위를 작게 설정하여 두 마디 또는 네 마디씩만 합창하기 - 합창한 부분 녹음하여 듣기
악보 없이 부르기	- 악보 없이 교사의 선창을 듣고 따라 부르는 방식으로 지도 - 무반주로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피아노 반주, 리듬악기 반주 추가 외워 부르기로 자연스럽게 연결
다양한 방법으로 합창하기	- 모든 성부가 교대로 질문-응답 형식으로 부르기 - 주요 가락과 각 마디별 주요 화성의 근음 또는 5음만 부르기 - 메아리 노래 부르기, 캐논 방식으로 노래부르기 - 한 성부는 옥타브 낮춰서 노래부르기, 오스티나토 노래부르기
신체표현을 병행한 발성과 노래부르기	- 발성연습과 본 합창곡을 부를 때 간단한 동작 첨가 - 음악의 원리를 몸으로 익힘과 동시에 즐거움과 흥미 높임

2.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합창수업 프로그램은 한 가지 악곡을 중심으로 연구된 수업지도안이거나 혹은 제재곡을 중심으로 한 지도방법의 개발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본 연구가 제안하는 합창수업 프로그램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합창부를 운영하고 지도함에 있어서 단계적인 지도방법과 지도내용을 주된 관심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학교 합창활동의 현황을 조사한 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신체표현을 포함한 발성지도로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고자 하였다. 또한 처음부터 성부를 나누어 합창의 기능을 익히는 대신 다양한 방법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성부의 어울림을 느껴 단계적으로 합창하는 즐거움을 익히는 합창지도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다뤄질 프로그램은 합창부를 위한 24차시 활동 계획안으로서 주제별로 6개의 영역을 단계별로 나누었다. 첫 번째 영역 ‘합창과 친해지기’는 노래하기에 앞서 음악을 듣고 합창에 익숙해지는 단계이다. 두 번째 영역인 ‘발성과 주요 성부’는 발성을 통해 차츰 합창에 익숙해지는 단계로서 발성곡을 즐겁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노래하도록 구성하였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영역은 교과서의 제재곡을 다양한 방식으로 합창하는 단계이다.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음악을 중심으로 한 다섯 번째 영역은 합창 레퍼토리의 확장을 시도한 단계이다. 마지막 영역은 작은 발표회를 위한 단계이다. 외워서 부르고 익힌 합창활동을 무대에서 발표하는 기회를 통해 학생들은 성취감을 경험하는 동시에 음악의 생활화를 도모할 수 있다.

<표 5> 차시별 영역, 활동주제 및 활동내용

차시	영역	활동주제	활동내용
1		노래로 인사하기, 자기소개하기	교사가 2-3음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노래‘여러분 안녕’으로 선창하고 학생들은 ‘선생님 안녕’으로 모방하여 인사노래 한다. 선생님이 이름을 노래로 소개하면 자연스럽게 한사람씩 자기 이름을 인사노래와 같은 가락으로 노래로 부른다. 가능하면 넓은 원을 만들어 선 자세로 손을 잡고 노래 부른다. 노래를 한 사람이 부르고 나면 전체학생이 함께 반복하여 부른다. 익숙해지면 박자에 맞춰 간단한, 팔다리 동작 첨가한다. 모든 순서는 무반주로 이루어진다.
2	합창과 친하기	교과서 제재곡 중 합창곡 듣기	5학년 교과서 제재곡 중 ‘희망과 영광의 땅’ 감상한 후 타악기를 함께 연주한다. 교사가 가사를 읽어주고 노래하면 함께 따라 부른다. 이때 음역이 높은 부분에 교사가 낮은 성부를 첨가하여 학생들에게 지도한다. 이밖에 교과서 속 감상곡이 합창곡으로 연주된 음악을 감상한다. 예: 리베라 합창단 연주의 캐논 변주곡
3		감상곡 중 합창곡 함께 부르기	지난주에 감상한 캐논 변주곡의 합창곡 배우기. 희망과 영광의 땅 노래 부르기. 교사가 높은 성부를 부르고 학생들은 낮은 성부(주선율)를 부른다. 학생들이 성부를 나누어 부르지는 않지만 교사의 화음과 함께 간단한 2부 합창을 경험하며 성부의 어울림을 느끼도록 한다.
4		발성과 친하기	교사는 한 학생이라도 오면 인사노래로 시작한다. 차례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인사노래와 자기소개 노래를 발성연습으로 한다. 이러한 순서를 일정한 의식으로 만든다. 발성을 하면서 팔다리 등을 움직이며 몸의 긴장감을 풀고 자연스럽게 소리 내고 호흡을 조금씩 길게 하는 연습을 한다. 인사하기 노래 이외의 발성곡과 전 시간에 배운 합창곡을 호흡과 발성에 주의하며 부른다. 노래는 한 옥타브 낮춰서 부르기, 돌림노래하기, 메아리 노래하기의 순으로 한 가지 노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며 성부의 어울림을 익힌다.
5	발성과 주요 성부	발성에서 노래로	학생들의 음역을 파악하여 차츰 음역을 확대한다. 작은 소리로 시작하여 귀를 손으로 막고 자신의 소리를 듣는 연습을 한다. 차츰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며 노래하는 훈련을 한다. 숨을 길게 쉬고 고르게 내쉬는 연습. 신체의 한 부분, 팔·허벅지·가슴 등을 두드리거나 문지르며 발성하기를 시작으로 재미있는 가사가 있는 발성곡을 노래한다. 옥타브 음역을 달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메아리 노래 방식으로 발성곡을 부르며 성부의 어울림을 느끼도록 한다.
6		신체움직임과 함께 발성하기	등근 원 대형으로 손을 잡고 서서 반음씩 올리는 발성연습 매회 반복. 몸 두드리기: 머리, 얼굴, 가슴 방향. 손목·팔·목 쓰다듬기·손등 비빈 후 얼굴에 대기·턱벌리기·귓볼 마사지하기. 리듬에 맞추어 몸 움직이며 발성하기: 4박마다 뒤꿈치·팔 들어올리기·숨길게 내쉬기 연습, 글리산도 연습: 모기소리와 움직이기 모방하며 발성하기·손뼉으로 모기잡기·옆 사람에게 이동하기·입술 떨며 비브라토 하기·사이렌 소리 내기. 움직임 예시: 커다란 공을 앞에 두고 누르는 자세·팔을 펴서 좌우로 8자 그리기·풍선 터트리 는 자세·양팔을 벌려 차례로 올리고 머리 위에서 손뼉치고 내리기 등등(악보 예시 참조). 스타카토, 레가토 등을 발성에서 연습하면 통통 뛰거나 미끄러지는 신체동작을 함께 한다.

차시	영역	활동주제	활동내용
7	교과서 합창 속으로 1	노래 배우기	발성연습에서 익힌 간단한 노래를 부르며 시작한다. 본격적인 노래 부르기 활동으로 6학년 교과서 제제곡 <우주 자전거> 노래 배우기, 노래를 익히며 발성에서 익힌 신체표현도 함께하며 호흡을 조절한다. 같은 리듬의 반복과 민요풍의 노래로 학생들이 교사의 선창에 따라 쉽게 익히고 외울 수 있는 노래다. 충분한 발성으로 다소 높은 음역의 가락을 순조롭게 부를 수 있도록 한다.
8		오스티나토	<우주 자전거>는 부분2부 합창곡이지만 아래성부는 두 마디씩 화성에 맞는 한음으로 리듬에 맞게 말 오스티나토 부른다. 교사가 먼저 시범을 보인 후 학생들이 아래성부 교사는 윗 성부를 부른다. 아래성부에 어울리는 가사를 지어 부른다. 아래 성부를 부르며 간단한 신체표현을 첨부한다.
9		성부쌓기1	<우주 자전거> 아래 성부를 익힌다. 작은 소리로 부르기 시작해 성부의 어울림, 윗성부와 소리의 조화를 생각하고 부른다. 윗성부도 신체표현을 함께 한다. 아래성부의 가락이 어려울 경우 메아리 노래 방식으로 부른다.
10		성부쌓기2	7, 8, 9차시 내용을 반복한 후 <우주 자전거> 부분2부 합창부분에 대선율을 넣어 3부 합창으로 부른다.
11		타악기와 함께	북·소고·캐스터네츠·탬버린·마라카스·글로켄슈필 등을 이용해 다양한 소리의 어울림을 느끼며 목소리 뿐 아니라 악기와 어우러진 합창을 경험한다.
12	교과서 합창 속으로 2	신체표현과 함께	그동안 익힌 <우주 자전거> 합창의 다양한 형태를 차례대로 복습한다. 발성에서 익힌 신체표현을 확장하여 합창곡에 적용하여 노래한다.
13		질문- 응답송	간단한 합창곡 부르기에 이어 다양한 합창곡을 부르는 순서로서 우리나라의 민요형식 중 하나인 메기고 받는 노래 <예농테농> 배우기. 교사의 선창으로 받는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하여 외워 부르도록 한다. 교사가 메기는 부분을 부르면 학생들은 받는 부분을 부른다. 점차적으로 메기는 부분을 익힌다. 학생들이 받는 소리를 부를 때 교사는 메기는 소리를 동시에 불러 성부의 어울림을 느끼도록 한다. 점차 학생들이 성부를 나누어 메기고 받는 소리를 하고 동시에 합창으로 부른다. 다른 나라의 질문-응답송 소개하고 감상한다.
14		아리랑	<아리랑> 민요 플래시몹 연주 동영상을 감상한 후 학생들과 함께 아리랑을 점차적으로 성부를 확대하여 부른다. 처음엔 한 사람이 부르고 두 사람·세 사람 차츰 인원을 늘리며 부르다가 합창으로 부른다. 합창을 부르는 가운데 악기도 함께 점차적으로 추가한다. 마지막에는 신체표현 및 신체악기·오스티나토·신체 오스티나토도 첨가한다.
15		대선율 노래	<중소리> 노래의 대선율을 익혀 합창한다. 다른 악곡에도 대선율의 원리를 적용하여 합창으로 부른다. 대선율에 의미 있는 다른 가사를 넣어 부른다. 대선율을 부르는 파트는 그에 어울리는 신체표현을 함께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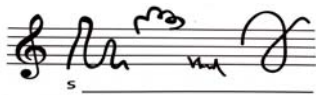
차시	영역	활동주제	활동내용
16		부분2부 합창	미국 민요 <스와니 강>, 오스트리아 민요 <빠꾸기>를 익히고 각 나라의 의상·풍속·민속춤 등을 함께 배운다. 춤과 함께 부분2부 합창한다.
17		2부, 3부 합창	아프리카 노래 <바누와> 같은 가락이 반복되는 단순한 가락에 화성을 점점 쌓아서 2:3:4성부로 부를 수 있는 합창곡이다. 돌림노래의 형식으로 차츰 화음을 성부를 첨가하며 부른다.
18	레퍼 토리 확장	광고, 응원가	<All together now> 광고에 사용된 영상과 월드컵 영상 함께 보고 부르기, 창의적으로 몸동작 표현하기
19		영화음악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토로> OST 부르기. 영화의 장면 감상하고 함께 부른 후 어려운 부분 반복하고 부분 지도한다. 손뼉치기·발구르기 등과 함께 부른다.
20		대중가요	<아름다운 세상> 간단한 신체표현과 함께 부분2부 합창하기. 대중가요의 특징인 당김음·점음표 부분을 유의하도록 지도하며 그 부분에 다양한 신체표현도 함께 넣어 부른다.
21		대중가요	대중가요 <마법의 성> 부분2부 합창. 수화와 함께 부르기. 남녀노소에게 익숙한 곡이나 음역이 높으므로 특별히 주의하여 부르도록 지도한다.
22	무대 연습, 리허설 및 발표회	무대에서 외워서 부르기	모든 합창곡은 외워 부르기를 기본으로 한다. 평소 합창실 또는 교실에서 부를 때와 무대에서 부를 때의 소리와 자세의 차이를 알고 외워 부르기를 한다.
23		리허설	무대에 오르는 순서, 입장과 퇴장·무대에서의 인사·시선·태도 등을 점검하고 연습한다. 무대에서 긴장을 풀고 즐기면서 노래하는 것을 훈련한다.
24		합창부 발표회	발성곡과 신체표현을 접목한 노래로 시작하여 아리랑 합창으로 발표회를 마친다. 마지막 노래는 청중과 함께 부른다. 청중 앞에서 발표할 기회가 없다면 합창부 자체 내에서 한 학기를 마무리 하는 순서로 자체 발표회를 갖는 것도 의의가 크다.

프로그램은 합창활동의 경험이 전혀 없는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수업은 각 차시의 프로그램에 합창곡을 감상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는 훈련으로 시작한다. 1차시부터 3차시까지 합창곡을 들으며 함께 노래 부르기와 오스티나토 연주하는 활동을 시작으로 점차 합창활동과 친숙해지도록 한다.

두 번째 영역인 4차시부터는 점차 합창곡에 익숙해졌을 때 발성연습을 서서히 시작한다. 발성지도 시 다양하고 흥미로운 짧은 곡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집중하기 쉽도록 하고 단시간에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며 신체표현과 놀이를 적용하여 합창활동을 역동적으로 진행한다. 다음은 신체 움직임과 함께 발성하기에 적용할

수 있는 동작과 악보의 예시로서 6차시 수업의 활동을 위한 것이다(Reuther, 2012). 본 합창 프로그램의 특징 중 한 가지는 매시간 반복되는 발성연습에 신체 표현과 놀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발성연습을 하는 동안 학생들이 발성연습도 하나의 유의미한 활동으로 여기며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고자 함에 있다. 예시 1과 2는 발성연습을 위해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이용하여 소리 내는 것으로 악보의 움직임을 손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며 소리 내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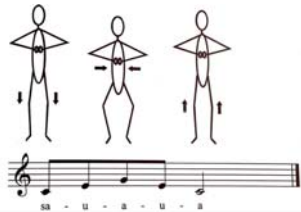
<예시 1> 모기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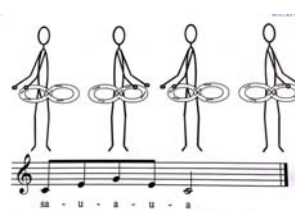
<예시 2> 글리산도를 이용한 사이렌 소리



<예시 3> 팔 벌리고 무릎 굽혔다 펴기



<예시 4> 양팔로 8자 그리기



합창지도방법의 기본방침은 고든의 음악학습이론을 적용하여 악보 없이 듣고 부르기로 교사 선창과 학생들의 모방으로 이루어지며 외워 부르기를 기본으로 한다(민경훈 외, 2010. p.278). 이 때 전 시간에 배운 노래는 항상 다음시간에 시작할 때 함께 부르며 시작한다. 일종의 의식으로서 인사노래, 자기소개 노래를 하며 발성노래는 항상 일정한 시간을 배정하여 매 합창시간마다 반복한다. 발성노래를 부를 때 파트를 나누어 옥타브를 달리하여 부름으로서 서로 다른 소리가 어우러짐을 경험하도록 한다. 두 번째 단계로는 메아리 방식으로 서로 주고받으며 노래하는데 점차 그 간격을 좁혀 화성감을 서서히 느끼도록 한다. 6차시까지 이 단계의 노래 부르기를 매번 반복한다.

7차시부터 3시간에 걸쳐 한 악곡을 2부 합창하는 본격적인 합창활동이 시작된다. 짧은 시간에 갑자기 성부를 나누어 노래 부르기가 익숙하지 않으므로 각 마디별로 주요화성의 한 음만을 내는 연습으로 시작한다. 노래 부르기가 익숙해진 후에는 합창활동의 한 방식인 타악기, 리듬악기와와의 합주, 신체표현과 함께 노래 부르기 활동이 이어진다.

다음 단계인 13차시부터 17차시에는 교과서의 다양한 제재곡을 질문-응답송, 한 사람이 부르기로 시작하여 점차 부르는 인원수를 늘려가는 방식, 대선을 노래, 부분 2부 합창, 2부, 3부 합창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창하는 법을 배운다.

다섯 번째 영역인 18차시부터 21차시에서는 지금까지 불렀던 방식에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광고, 영화, 만화영화 음악, 대중가요 등의 악곡을 활용한다. 마지막 단계의 3차시 수업은 자율적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갖거나 작은 발표회를 진행하여 외워서 부르고 연주하는 경험을 하도록 지도한다.

V. 결론 및 제언

몇 년 전 한 방송에서 합창활동을 다룬 프로그램이 소개된 이후 잠시 합창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일이 있었다. 방송 프로그램은 합창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다루었는데, 합창활동은 매우 즐겁고 아름다운 활동임을 깨우쳐 주었을 뿐 아니라 인간과 사회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연마한다는 점을 부각시켜 주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합창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지 못했고 주지하다시피 청소년과 어린 학생들의 관심은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옮겨가고 말았다.

음악적 관심이 대중음악에만 편중되는 것은 건강한 음악문화를 형성하지 못한다. 한 나라의 음악문화가 발전하려면 음악의 모든 분야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 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은 이러한 균형 있는 음악문화 발전을 주도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홀해져 가는 합창활동에 대한 고찰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의 음악활동에까지 해당된다. 본 논문은 현행교육과정 중 음악과의 교수-학습 내용체계에 나타난 합창활동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합창활동에 대해 새롭게 고찰할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합창활동의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합창활동이 축소되는 현상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더욱이 각 학교 내에 개설된 특별활동 부서인 합창부마저 각종 합창대회의 폐지 등으로 인해 그 활동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 상황이다 (임현정, 2014).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은 합창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합창활동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의 주안점은 첫째, 어린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즐겨 부를 수 있는 레퍼토리의 선정, 즉 쉬운 악곡부터 시작하여 만화영화, 대중가요, 학교 교과서 제재곡, 우리 민요 등으로 레퍼토리를 확장하였다. 둘째, 신체표현을 병행한 발성연습과 놀이를 겸한 합창지도 방법 그리고 합창의 영역을 메아리 노래, 돌림노래, 오스티나토 노래, 다양한 악기와의 합주, 신체표현과의 연주 등으로 구성하여 보다 쉽게 합창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금까지의 합창활동에 대한 연구가 일회성의 합창활동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에 치중되어 왔다면, 본 논문은 한 가지 지도방법, 한 가지 악곡을 지도하는 단편적인 내용이 아닌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안목의 합창지도 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어떤 교사라도 본 논문이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자신의 합창부 활동에 적용하고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학교 음악수업에도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서 정규 교육과정의 학습요소를 프로그램의 각 차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수업에서 어렵게 여겨지는 합창활동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도방법의 가능성을 안내함으로써 점점 그 비중을 잃어가는 합창활동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학교 음악교육의 발전과 더불어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합창을 통해 보다 음악과 가까워지고 생활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류미혜 (2009), 교실 합창 지도에서 노래 가사 읽기 활용 방안. **예술교육연구**, 7, 89-104.
- 민경훈 외 11인 (2010), **음악교육학 총론**. 서울: 학지사.
- 손보현 (2009),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의 합창 교재곡 재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계휴 외 6인 (2011), 초등학교 음악 5, 6. 서울: 천재교육.
- 양종모 외 7인 (2011), 초등학교 음악5, 6. 서울: 금성출판사.
- 우두선 (2010), 달크로즈 유리드믹스를 이용한 합창지도 방안 연구. **예술교육연구**, 8, 55-76.
- 윤성원 (2012), 초, 중등학교 합창교육 운영 시스템 설계. **음악교육공학**, 14, 81-98.
- 이경은 (2010), 초등학교 교실 합창수업의 실태조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애 (2007), 합창의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 인문계 고등학교 여성 합창부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미 (2009), 합창교육의 사회학적 접근. **예술교육연구**, 7, 123-135.
- 이윤주 (2009), 단계적 합창지도를 통한 교실 합창에서의 음악적 표현력 신장 방안 연구 : 초등학교 6학년을 중심으로.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미경 외 4인(2010), **음악 교수법**. 서울: 학지사.
- 임현정 (2014), 서울지역 초등학교 합창부 운영실태.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순이 (2011), 아 카펠라를 활용한 초등학교 합창수업 지도방안 연구. **음악교육연구**, 37, 251-274.
- 주대창 외 5인 (2011), 초등학교 음악 5, 6. 서울: 도서출판 대성.
- 진강희 (2006), 협동학습을 적용한 교실 합창지도 방안 연구: 팀 성취도 배분학습(STAD)을 중심으로.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영경 (2011), 농어촌 학교 합창부의 운영 실태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 초등학교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영 (2014), 고든의 오디에이션 이론에 기초한 초등음악수업에서의 즉흥연주지도. **교사교육연구**, 53, 430-446.
- 한상남 (2004), 인천지역 초등학교 합창부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함희주 외 9인 (2012), **세계의 학교 음악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사.
- 현경실 (1994), 고든 학습이론과 실제 수업에의 적용 방안. **음악교육연구**, 13, 175-196.
- Beckers, Erich & Oezdemir Melanie(2010), *Zwischenbericht zur Evaluation des Projekts Jedem Kind seine Stimme*. Kassel: Gustav Bosse Verlag.
- Jutta Funk et al. (2007), *Musik und Tanz für Kinder*. Mainz: Schott.
- Fessmann, Klaus & Kaufmann, Michael(2009). *Resonanz & Akzeptanz*. München: Koesel.
- Reuther, Inga Mareile (2012), *JEKISS-Jedem Kind seine Stimme*. Kassel: Bosse Verlag.
- Robinson, Russel & Althous, Jay (2014). **코랄 발성 위밍업**. 김필승(역). 서울: 상지원.
- Wieblitz, Christiane (2007), *Lebendiger Kinderchor. Kreativ, spielerisch, tänzerisch*. Stuttgart: Fidula.
- <http://blog.chor.com/tag/deutscher-chorverband/>

ABSTRACT

A Development of Music Program for Chorus Vitalizing in Elementary School

Eun-Un Chang

The musical activities, such as choir activities, are decreasing in elementary school nowadays. This paper aims at presenting realities of music education, pointing out some problems, and suggesting a program with which primary schools vitalize choir - building activities as well as choir activities. Instead external motivation, such as choral festival competitions, an internal motivation is required. The presenting program internally motivates primary school students to participate choral activities voluntarily. This program includes vocalization as bodily expression for the children, and choral repertoire which includes the selected songs from textbook, and of integral part of daily life. The program can be applied as following: firstly, teachers experience choral activities. Then, teachers lead students with their own voices and without sheet music.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a suggestion to vitalize choir activities in classroom as well as choir team.

Key words: chorus lesson, body expression and vocalization, chorus repertoire, progressive Chorus Guidance

투고일: 2015년 2월 27일, 심사(수정): 4월 27일(5월 2일), 게재확정일: 5월 26일